

'힐링 트레킹 명소' 합라산

익산시, 국립 치유의숲 · 야생차 군락지 연계... 2024년까지 치유 · 경관 특화숲 조성

'국립 익산 치유의숲'이 들어서면 익산 합라산이 전북 대표 힐링 트레킹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는 금강 조망이 펼쳐지는 합라산 임도를 전북 최초로 추진 중인 '국립 익산 치유의숲'과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가 연결된 일곱 빛깔 꽃 · 단풍 숲 터널길로 재탄생 시킨다.

시는 합라산 임도를 꽃과 단풍이 어우러진 명품 임도로 탈바꿈하는 합라산 경관특화 숲 공사를 착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대봉골에서 출발해 국립 익산 치유의숲 내에 신설되는 치유 숲길 및 횡통길 2km 구간과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를 거쳐 임접마을까지 총 9.18km까지 합라산 임도가 자연의 화려한 색깔을 입은 명품 트레킹 코스로 변모한다. 시는 '국립 치유의숲'과 연계해 합라



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예산 사업으로 발굴하고, 총 21억원(국도비 14억 포함)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00ha 규모의 꽃과 수목 10만 주를 식재 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에도 숲 터널이 그늘을 만들어줘 쾌적한 코스로 인기를 끌지

만 단조로운 소나무 위주였던 합라산 임도에 다채로운 색깔의 꽃과 나무를 심어 사계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에 따라 봄에는 공작란 애기말발 도리 삼색병꽃을 심어 어린 초목앞을 한층 빛내주는 흰색 꽃길을 만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이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관람 제한구역이었던 전시장을 모두 개방해 운영한다.

'금강미래체험관 새 단장 완료'

군산시, 금강의 문화관 · 생태관... 미래기후변화관으로 본관 개편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이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관람 제한구역이었던 전시장을 모두 개방해 운영한다.

지난 2008년 개관해 철새 중심의 관람시장이었던 철새조망대는 2020년부터 금강미래체험관으로 이름을 변경, 기후위기 교육체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철새 중심의 전시내용을 현재 체험관의 교육내용과 어울리도록 금강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이번 공사를 통해 체험관의 주 전시장이었던 본관 1, 2층이 금강의 문화관, 금강의 생태관, 미래기후변화관의 3개의 관으로 개편됐다.

1관 금강의 문화관은 금강의 어원, 유적지, 주요 포구와 시장 먹거리, 전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꽃배, 나룻배, 뱃목의 모형과 강변

시장을 재연한 디오라마, 네온사인으로 제작된 나태주 시인의 시 '금강가에서'가 전시되고 있다.

2관 금강의 생태관은 금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금강 상류의 반딧불이 터널을 시작으로 금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 및 포유류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고 수족관에서는 금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3관 미래기후변화관은 체험 위주의 전시장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짧은 영상 상 시청 후 체험관에서 제작한 교구들을 사용해 나무심기, 분리배출, 낚시놀이, 퍼즐 등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관 관계자는 "금강미래체험관은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금강'이라는 컨셉트를 통해 다른 전시장들과 차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조선업 인식개선 직무특강 · 취업캠프 운영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조선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특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특강은 조선업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오는 2일 및 16일 각 10시부터 12시까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조선업 관련 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인원, 직무설명, 질의응답 및 면접교육으로 구직자들의 조선업 직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전 참여신청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다.

더불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조선업 취업캠프 '조선업의 봄! 응원해 봄!'이 오는 10일 수요일 10:00시부터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개최된다. 응집 및 도장 직업훈련 교육안내, 조선업 관련 기업 인사담당자의 직무설명 및 입사지원서 작성 등 구직자들의 조선업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전접수는 오는 8일까지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MZ세대 청년교육 정착 '청년 골든벨' 개최

익산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전직원 청렴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청렴익산!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8일 팔봉동 소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각 부서 공무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익산!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청렴 골든벨은 각 부서 대표 138명이 출전했다. 청렴 시책,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청렴 상식 문제를 '하이 트보드'에 정답을 적어내는 방식의 골든벨 형식 퀴즈로 진행돼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직원 간 화합과 수평적 소통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 장도 함께 청렴 골든벨 문제 풀이에 참여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승 문제를 출제하며 청렴 시정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대학로위원회, 청년 문화거리 프로젝트 시동

입학생 감소 · 침체된 대학로 상권... 대학과 지자체 협력 돌파구 모색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대학로위원회가 1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시용합소프웨어 체험관에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을 비롯해 대학로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지역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로 청년문화거리 조성 기본구상, 복합문화공간 '오늘'의 운영방안, 대학로 청년문화축제의 부활 등 제안된 세가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또 장기적으로 대학로를 중심으로 익산시가 대학도시이자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학로 청년문화거리 조성 기본구상'에서 대학로의 역사와 의미를 재설정하고,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동선설계 및 거점공간 조성과 활용방안, 대학로와 대학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공간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로와 원광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광장 문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오늘'의 운영방안은 원광대 조은영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대학로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오늘'은 단순한 전시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 팝업스토어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원도연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대학로에 활력을 더하고 이 공간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추억을 쌓기 위해 2009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학로 문화축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 익산스토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맞손'

익산시가 1일 익산 최대 지역캐인 '익산스토리(카페마스터 하늘대장)'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함께 힘을 쏟는다.

시는 은오프라인의 총총한 복지마음을 갖추고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익산스토리(카페마스터 하늘대장)'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온라인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및 홍보, 발굴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와 자원연계 등에 대하여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자유로운 복지상담, 위기가구 제보, 도움요청 등 다양한 복지 관련 계시글에 대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효과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의 중심에 '익산주민(Zoom-In)'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총총하고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다이로움 택시 포인트 적립률 5% 늘려

익산지역화폐 연계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익산다이로움택시가 시민들과 택시업계에 각광을 받으며 '4+1' 효과를 선보인다.

시는 이달 8일부터 다이로움 택시 이용 시 기존 2% 포인트 적립률에서 5%로 혜택을 톱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5% 혜택은 4,000원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했을 때, 총 4번 이용 시 8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될 뿐만 아니라, 최대 3,200원(캐시백 1,600원 + 익산다이로움도움금 1,600원)의 익산다이로움도움금 지급받게 된다. 이는 4,000

원 요금의 택시 4번을 타면 무료로 한번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는 다이로움택시의 가입자 수가 현재 4만5천399명이며 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용률은 278만8천748건에 달해 이번 5% 포인트 확대가 침체된 택시업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 익산다이로움택시 어플을 사용하여 자동결제로 택시를 이용하였을 때에만 해당되며, 단순 전화로리는 포인트를 받을 수 없어, 어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